

'익산농업기계박람회' 준비 박차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31일 농수산물도매시장서 개최... 자율주행 · 스마트ICT 초점 행사 마련

자율주행과 스마트 ICT에 초점을 맞춘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31일 개막을 앞두고 성공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13년 개최를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익산에서 개최되는 농업기계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24일 막바지 현장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자율주행 농기계 및 스마트 ICT 기종 등 최신 농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이 종합적으로 전시돼 농업인과 농기계 생산업체 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동·TYM·아세아텍 등 국내의 약 200개 사가 참여해 수도작·밭농업기계와 과수·윌에·축산·가공기계 부품 등 400여 기종을 전시하는 대규모 박람회인 만큼 기반 시설, 전시추진 상황을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또한 총 690개 부스운영에 따른 대규모 인파 및 집 구간에 파악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안전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연시장을 운영해 최신 농기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시험 체험 안전 매뉴얼 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농업기계박람회를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계획과 주차대책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해 농도 익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특수교량 안전관리 적극 대책 마련을"

환경부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은 24일 제 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의 요지를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 라고 소개하고 군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추진하고 특수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환경부 의원은 "군산시의 여러 섬이 모여 있는 고군산군도는 새만금방조제의 완공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시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16년에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북서쪽 끝자락에 나란히 놓인 말도 명도 방축도 유인도서와 보농도 광대섬이라는 무인도서를 순수 인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며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 섬들에 인도교를 설치하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장장 14km의 길을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코스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공사가 2022년 10월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발언이 마쳐버렸다"며 "지난 제258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2교교량과 케이블에 대한 안전진단 연구 용역을 시행한 1억 4천 5백만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교량에 설치된 케이블이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진동이 초과 발생하여, 개통 전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동을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드넓은 바다에 섬과 섬 사이에 불어오는 강풍이 뻥뻥 예상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

황에서 이제야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담당자는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교량에 대한 각종 검사를 맡겨 설계 잘못인지, 부설사공인지, 공법이 틀린 것인지? 이제야 문제를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교량 계획 및 설계 시 최초 계획 단계부터 설계하중, 내진성, 내풍 안정성, 수해 내구성 등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풍동시험과 공탄성 해석을 시행 내풍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냐"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한 특정 자체·공법 선정 심의는 11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 중 해상교량이나 케이블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의과정에는 3명이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필요성 · 당위성 설명

정현을 익산시장이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 시장은 오는 31일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본격화되기 전 국회 단계 첫 행보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는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의 증액이나 신규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검토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루어졌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장 및 각 예산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홀로그램기술 사업과 실증지원사업 △산재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미리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앞으로 정현을 시장을 필두로 전 간부공무원들이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를 수시로 방문해 김수흥·한병



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의원 지역 출신 정치인 인사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별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누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라며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서부권역 시간제 보육확대... 사각지대 해소

익산시가 서부권역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선다.

시는 영유아 가정 부모들의 높은 서비스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사랑어린이집(모현동)을 시간제 보육서비스기관으로 추가해 보다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이로써 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동), 익산어린이집(용산동), 아가별어린이집(남중동), 하늘어린이집(합영동), 엄마방어린이집(남중동), 덩동방어린이집(신동) 등 6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을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은 민6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긴급 보육 서비스 필요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예약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063-276-80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 및 휴일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만 6개월부터 만 5세(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예약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63-859-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보건소, 'HOHO' 건강일터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 보건소는 3050세대의 주 생활 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HOHO' 건강일터 프로그램이 24일 사후검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HOHO 건강일터는 Happy Office with Healthy Workers'의 출입말로 3050세대의 주 생활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운영해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군산시 내 50인 이상의

사업장 4개소를 선착순 모집해 사업장별로 5~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1달에 2번 총 38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약 830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고위험 음주 예방 교육, 소금 섭취량 검사를 통한 식습관 점검,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직장 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직장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 클리닉, 구강검진 등 총 8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2023년 군산시 여성 한마음대회 26일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월명체육관에서 2023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성희)가 주관하는 화합의 장으로 군산시 13개 여성단체 회원 및 군산시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한마음대회는 아랑고교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 2부 행사로 어울림 한마당(명랑운동회)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평소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써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군산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위해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총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